

중앙아시아 축산 부흥 견인 'k-축산기술' 성과 가시화

KOPIA 사업 성과 집약,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 실험실 준공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코피아(KOPIA)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키르기스스탄 축산 분야 농업 기술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15일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해 현지 기술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일리치 마르스벡 울루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수석차관과 만나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오는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과 연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청장은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에서 열린 실험실 준공식에도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실험실은 농촌진흥청이 코피아(KOPIA) 사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와 공동으로 구축한 축산 기술협력 핵심 인프라다.

소 유전자원과 정액을 활용한 인공수정 기술을 보급하고, 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사업 참여 농가의 우수 생산량이 재래종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 축산 국제 학술회의'에서 농촌진흥청은 코피아(KOPIA)와 아파시(AFACI) 사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 개량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의 축산 기술력을 알렸다.

기로 개체식별, 혈통등록, 능력검정 등 체계 구축과 한국산 축산 기자재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돈 청장은 "키르기스스탄 축산사업은 K-농업기술 확산의 대표 사례"라며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협력을 넓혀 현지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농업부에서 일리치 마르스벡 울루(Lic Marsbek Uulu)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수석차관을 만나 양국간 농업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지원

6월 1일부터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오는 6월 한 달간 '2026년 닭·오리·계란 이력제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에 필요한 인크, 리본, 라벨지, 포장지 등 소모품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이력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닭·오리·식용란 등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취급

하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신고를 이행하는 도축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소다.

특히 올해는 이력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원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닭·오리·계란 제품 포장지나 라벨지에 이력제 BI(Brand Identity)를 표시하거나 계란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한 업체에는 지원 금액을 상향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의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관리시스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또는 이력지원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축 및 선별포장업체의 소모품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단계 전산 신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력제 BI와 이력번호 표시를 확대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구제역 백신 접종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상승 확인

전년도 상반기 99.1%보다 0.2%p ↑

하반기 98.9%보다 0.4%p 높은 수준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이후 실시한 항체 모니터링 검사 결과, 소·염소 농가의 백신 항체양성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4월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227호 2,320두를 대상으로 백신항체(SP)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은 99.3%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항체양성률 99.1%, 하반기 98.9%보다 상승한

수치다. 소 농가는 소규모, 전업농 모두 99.4%, 염소 농가는 소규모 98.3%, 전업농 94.6%로 나타났다.

또한 구제역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NSP 항체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고양시 구제역 발생 이후 농가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접종 관리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상반기 전국 구제역 일제접종 이후 백신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제역은 백신접종만 제대로 이뤄져도 확산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만큼, 접종 누락 방지와 적기 접종이 중요하다.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 차단에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방법은 빠짐없는 백신 접종과 철저한 농장 방역"이라며 "상시 예찰과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농장 및 방역 취약시설 소독 지원 등을 통해 구제역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전국립현충원 순국선열 추모

현충탑 참배 및 묘역 환경정비로 나라사랑 실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는 5월 19일(화)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헌화 및 추모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환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현충탑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유공자 묘역으로 이동해 태극기 꽂기 등

묘역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국립묘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관장 주도의 체현형 현충선양활동을



▲기념행사에서 방문객들이 누에 만지기 체험을 하고 있다.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국립묘지를 찾고 현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태환 본부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의 위를 실천하고 나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앞으로도 나라사랑 정신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동네 정육점에서 '한우소프라이즈' 할인행사 추진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소규모 정육점 중심의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소프라이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한우 소비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사는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전국 37개 소규모 정육점에서 진행되며, 한우자조금의 '식육점 판매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행사를 지역 정육점으로 확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참여 정육점에 5~10% 수준의 할인 판매 지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 부담을 낮췄다. 소비자는

1++등급부터 2등급까지 다양한 한우를 부위별로 기존 가격 대비 최대 47.4%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업소별로 행사 기간과 품목,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37개 정육점이 참여하며, 세부 정보는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 MBA' 교육생 모집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 중심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한우농가 경영개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MBA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만 55세 미만 청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경영 분석, 재무관리, 마케팅·유통 전략, 사양기술 등을 아우르는 실무형 통합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AI 활용, 브랜딩, 유통·마케팅, SNS 홍보 등 다양한 영역

을 접목해 생산 중심에서 벗어난 고부가가치 농장 운영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농가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경영 문제를 진단하고, 농장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농가 스스로 경영 방식과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부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양관리, 수의·질병관리, 경영·재무관리, 유통·마케팅 전략, 브랜딩, 디지털·데이터 활용 등이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한우농가가 데이터와 경영지표를 기반으로 농장을 분석하고, 브랜딩·마케팅·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춘 실무형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